반세기 원력, 어린이 포교로 피어나다

지역 불교人 광주 연화사 주지 명신 스님

상인 스님 인연으로 유치원 운영
어린이 포교는 강권 아닌 기다림
"행복해지는 삶, 가르치는 게 중요"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지역 유일 불교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연화사 주지 명신 스님.

광주 도심 한복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염불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찰이 있다. 광주 유일의 불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지역 포교의 한 축을 묵묵히 지켜 온 연화사다. 연화사 주지 명신 스님은 수행자이자 교육자, 그리고 광주불교의 산증인으로 살아온 인물이다.

연화사의 시작은 특별하다. 1966년 광주 관음사 주지였던 상인 스님은 광주 동구에 자리한 지산동 5층 석탑의 보존 필요성을 절감했다. 보물로 지정된 이 석탑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았지만 관리 여건은 녹록지 않았다. 1975년 '광주동5층석탑보존위원회'가 설립되고, 석탑을 보존할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명신 스님과의 인연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1979년 연화유치원이 완공됐고 이를 토대로 연화사가 창건됐다. 명신 스님은 "처음에는 유치원을 맡아 운영할 사람이 없어 상인 스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다"며 "출가 후에는 조용히 기도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인연 따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됐다"고 회상했다.

1984년 연화사 주지로 부임한 후 명신 스님은 사찰의 기틀을 하나하나 다져 왔다. 주변에 있던 22채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해 대웅전과 주요 전각을 중창했다. 신도 9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도량은 이제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오가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됐다.

"저는 지금까지 신도들에게 '절에 와서 기도하세요'라고 초청장을 보내거나 알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 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신 스님의 포교관은 '기다림'이다. 도심 한복판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포교는 시작됐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가르침은 '나와 너,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삶'이다.

"불교는 혼자만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와 상대가 함께 이로워지는 길을 가르치는 가르침이지요.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연화사의 또 다른 축은 지산동 5층 석탑 보존과 다례재 봉행이다. 연화사는 이 석탑을 지키기 위해 창건된 사찰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남다르다. 이 일대는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이 출가한 무량사 터로 알려져 있으며, 상인 스님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모아 석탑 보존 운동을 펼쳐 왔다.

명신 스님은 석탑 보존에 늘 정성이었고 2011년부터는 매년 음력 3월 3일 이곳에서 '일연선사 추모 다례재'를 봉행해 오고 있다. 단순한 의례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불교 정신을 되새기는 수행의 장이다.

미래를 향한 명신 스님의 시선은 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 교육입니다. 청소년, 청년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불교를 만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통영 연화사, 삼존불 점안·만일기도 회향

1월 15일 대웅전서 점안 법회
도법 스님 "기도도량 자리매김"


통영 연화사는 1월 15일 대웅전에서 아미타 · 관음 · 지장 삼존불과 아미타칠성여래불을 점안하고 만일기도를 회향했다.

통영 연화사(주지 도법 스님)는 1월 15일 대웅전에서 아미타·관음·지장 삼존불과 아미타칠성여래불을 점안하고 만일기도를 회향했다.

법회에는 의정부 성불사 회주 도서 스님과 옥천사 진성 스님, 약사전 성혜 스님, 도선사 도심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약수암 수운 스님, 보광사 연산 스님, 용궁사 환희 스님, 여래사 불암 스님, 심적사 종범 스님, 의왕사 진행 스님, 자비사 정신 스님, 금탑사 정왜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안휘성 통영거사림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도법 스님은 "연화사 창건 이래 이어져 온 천일기도와 중창불사를 바탕으로 오늘 만일기도를 원만히 회향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이번 불사를 계기로 부처님 개금과 복장 의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도량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큰스님들과 도선사 주지 도심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연화사가 기도와 수행 도량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불사를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성불사 회주 도서 스님은 법문에서 "오늘 연화사 도량에서 제방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부처님 전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큰 복덕"이라며 "도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원력과 신도들의 정성, 세월 속에서 쌓인 기도의 힘이 모여 이루어진다. 만일기도 회향을 계기로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음을 닦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의 회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연화사가 수행과 자비 실천의 중심 도량으로 더욱 발전하길 발원한다"고 축원했다.

참석자들은 삼존불 및 아미타칠성여래불 점안을 축하하고 만일기도 회향의 공덕을 함께 나누며, 연화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기도 도량이 될 것을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강 대종사, 본사 용주사로 모시다

전강 스님 열반 51주기 추모재
용주사서 첫 봉행…"선양 최선"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선풍을 진작시켰던 전강 대종사의 열반 51주기 추모재가 1월 20일 스님의 수행 정신이 서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번 추모재는 그동안 인천 용화선원에서 거행되던 관례를 깨고, 전강 대종사를 '정신적 지주'로 모시는 용주사가 교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직접 봉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전강 스님의 법맥을 이은 송담 스님이 '법인법' 제정 과정에서 탈종한 이후, 대종사의 선양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본사 차원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용주사 관음전에서 봉행된 추모재에는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용주사 상임운영위원장 세영 스님(수원사 회주), 중앙선원 수좌 스님들, 그리고 본·말사 대중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대종사의 높은 덕화를 기렸다.

참석 대중을 대표해 인사말에 나선 세영 스님은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용주사 본·말사 대중이 하나로 화합하고, 수행과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보은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관음전에서의 의식을 마친 대중은 경내 사리탑(부도탑)으로 자리를 옮겨 참배를 이어 갔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오늘날의 용주사를 있게 한 전강 대종사의 추모재를 이제야 본사에서 모시게 된 것에 대해 후학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용주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선양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자현 스님 "지역 핵심 포교사찰 발돋움"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
1월 18일 주지 취임법회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는 1월 18일 극락전에서 신임 주지 자현 스님〈사진〉의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관음사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100년을 기원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월정사 만월선원 한주 증도 스님, 상원사 해량 스님, 대구 정토사 대원 스님, 강릉 법왕사 유엄 스님(전 관음사 주지), 월정사 재무국장 덕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동림선원 대중 등 800여 명이 함께했다.

정념 스님은 축사를 통해 "근대 한국불교 3대 도심포교당의 하나인 관음사는 월정사의 관문이자 도심포교의 상징적인 사찰"이라며 "대중 신행과 포교를 이끌어 온 자현 스님의 취임은 관음사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창조적인 신행 포교로 강릉불교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신임 주지로 취임한 자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관음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금천관 개축불사를 통해 '강릉 7일 살기'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고, 포교·인문·관광이 어우러진 명주문화권의 핵심 포교사찰로 관음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음사는 자현 스님의 취임을 기념해 강릉시에 10kg 백미 160포를 전달하는 자비행을 실천했으며, 오후에는 제24기 관음사 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제70기 월정사 출가학교 입재

17~65세 행자 30명 입교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1월 13일 '제70기 월정사 출가학교' 입재식을 봉행하고 4주간의 수행 여정을 시작했다.〈사진〉

이번 출가학교에는 17세 최연소 참가자부터 65세 최고령 참가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30명(남 21명·여 9명)이 입교했다. 참가자들은 한 달 동안 예불과 운력, 선 명상, 발우공양, 교리 강의, 오대 순례, 묵언 수행 등 실제 승가의 일상과 수행을 체험하게 된다.

입재식과 함께 봉행된 입학 고불식에서 월정사 한주 혜안 스님은 "출가학교는 마음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라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큰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주지 정념 스님은 1월 14일 삭발식 법문에서 "출가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4주간의 공동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 씀씀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의 힘을 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문경세계명상마을, 청년명상캠프 성료

1월 12~18일 7일간 진행



문경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 스님)은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2026 MZ청년명상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캠프는 문경세계명상마을 최종 사용승인 후 새해를 맞아 진행된 첫 수행 프로그램으로 '선칠(禪七, 7일간의 집중 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세부터 44세까지 60명의 청년이 동참했다.

청년들의 수행열기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방문해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7일간의 명상 공덕으로 앞으로 각자가 세운 서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선원장 각산 스님은 "이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여수불교사암연, 신년하례법회 봉행

1월 17일 여수시청 강당서



여수불교사암연합회(회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는 1월 17일 여수시청 대강당에서 '불기 2570년 여수불교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원만성공을 발원했다.〈사진〉

여수시청불자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회장 연규 스님과 흥국사 주지 진만 스님, 부회장 도해 스님(달마사 주지) 등이 참석했다.

연규 스님은 "각자 마음속 붉은 말을 잘 길러 그 말 위에 누가 올라타 있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불교사암연, 3대 포교 과제 발표

1월 17일 신년하례법회서



천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언 스님)는 1월 17일 천안 만수사 대웅보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올해 3대 포교 과제를 발표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천안불교사암련 원로의장 지산 대원 대종사와 회장 도언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 김선태 충남도의원, 구본영 전 천안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추진할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스님은 "사찰 간 상호 화합과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봉축행사와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을 통해 다져진 연합의 결속을 올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주 화엄불교대학·학림원 졸업식

1월 18일 49명 졸업생 배출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화평 스님, 금산사 주지)이 제37기 화엄불교대학과 제29기 화엄학림원 졸업식을 봉행했다.

1월 18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열린 이날 졸업식에서 화엄불교대학 제37기 24명, 화엄학림원 29기 25명 등 총 49명이 졸업했다.

화평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이웃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불자로서 도리를 다한다면 능히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보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